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강진고을] 제4회 현구문학제..., 현구를 추억하다_2023.09.26.	3
첨부파일(1)	3

[강진고을] 제4회 현구문학제..., 현구를 추억하다_2023.09.26.

작성일 2023.09.27 10:03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41

첨부파일(1) [강진고을] 제4회 현구문학제..., 현구를 추억하다_2023.09.26.. 2 hit/934.6 KB [다운로드](#)



제4회 현구문학제... 현구를 추억하다

9월 22일 현구생가 및 시문학파기념관 일원
제4회 현구문학상... 송은일 소설가·심규한 시인

제4회 현구문학제(의장 김명애)가 '현구를 추억하다'란 주제로 지난 22일 오후 2시 반 현구생가 및 시문학파기념관 일원에서 열렸다. 축하공연은 강진합창단과 김미순-현명순의 기타 연주기 있었고 행사중간과 말미에 소프라노 박준영 작곡 피아노 이승규의 성악공연이 있었다. 말미에는 성요셉산호문학교등학교 임은자 수녀 외 7명이 합창을 하였고 바리톤 이광임의 성악공연이 있었다.

50만원)이 강진고 옛년 문혜진 학생에게 전달됐다. 현구문학상 심사평은 심사위원장인 노정수 심사위원이 발표했다. 수상자는 2인으로 송은일 소설가와 심규한 시인이다. 송은일 수상자는 1994년 고흥출신으로 1995년 광주일보 산문문에 '꿈꾸는 실사원', 당선 소설집으로 '아스피린 두 알', '불꽃심', '소울메이트', '도둑의누이', '한 꽃살문에 관한 진실', '사랑을 뫼다', '황인',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심규한 수상자는 1971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2008년 시마을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물영이도 피스하다', '지금 여기', '내가 시다' 등이 있다. 이날 시상식이 있기 전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최현선 전남도립대학 명예교수의 현구시의 서정성과 그 정통이란 강연이 있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시문학파기념관 전시실에서 '김현구 유필 원고와 사진 전시'가 있었고 '시가 있는 현구생가'는 현구생가 내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현구길 기행' 이렇게 자치자' 현구생가에서 추억만들기 '노린 우체통'이 있었다. 송하은 기자

목록

GANGJIN

Web Contents

